

‘우리 쌀’ 역사 · 문화 · 미래 가치 조명

농식품부,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소비촉진 퍼포먼스 · 우수 쌀 시상 · 전시 · 체험 등 다채롭게 열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2회 쌀의 날을 맞아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건강한 쌀 중심 식습관 확산과 쌀 소비 촉진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우리를 잇는 한 톨’을 주제로 쌀이 지닌 역사적 · 생활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쌀의 날’은 한자 ‘쌀 米(米)’를 ‘팔(八) · 십(十) · 팔(八)’로 풀이해 정한 8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쌀 한 톨이 생산되기까지 농업인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

다.

주요 행사로는 정부 고품질 우수 품종과 농협쌀 대표브랜드 시상, 쌀 소비촉진 기념 퍼포먼스, 쌀 쌀가공식품 전시 · 체험 등이 진행됐다.

정부 고품질 우수 품종은 한국식품연구원의 품종 품질평가를 거쳐 후보군을 선정하 뒤 6주간 국민과 전문가의 관능적 식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농협 주관 대표브랜드 쌀은 자체 평가를 통해 도별 대표 1위와 상위 10위 이내 우수 브랜드 등을 포함해 10대 대표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한 기념 퍼포먼스에는 농협경제지주와 농림수산물교 육문화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생산 · 유통 · 소비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를 잇는 쌀 한 톨을 형상화한 LED 터치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 쌀의 가치가 미래로 이어지고 확산된다는 의미를 표현했다. 쌀 소비촉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인기 아이돌 그룹 ‘아일릿’의 축하 영상도 소개됐다.

전시 공간은 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주제관을 비롯해 쌀 · 쌀가공식품 홍보관, 쌀 활용 체험관, 쌀가공식품 시식관 등으로 구성됐다.

‘과거의 한 톨’에서는 벼에서 쌀이 생산되기까지의 과정과 농기구, 벅짚 공예 유물 등을 통해 전통 농경문화를 소개했다.

‘오늘의 한 톨’에서는 밥맛과 재배

안정성이 뛰어난 품종과 건강 기능성이 강화된 품종을 소개하고, 다양한 쌀가공식품을 선보였다.

‘내일의 한 톨’에서는 미래 식량과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는 쌀의 가능성을 소개하고 캠핑과 선물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틱 · 지퍼백 · 캔 형태의 다양한 쌀 패키지도 전시했다.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과 즐길거리도 마련됐다. 쌀이스크립과 쌀과자 등 쌀가공식품 시식과 함께 즉석 도정기를 활용해 갓 도정한 쌀을 담아가는 쌀포대 아트, 벼 · 쌀 캐릭터 페이스페인팅, 컬러쌀 그림 그리기, 쌀 기념일 프레임은 활용한 사진 촬영, 대왕 벅짚 포토존 등이 운영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18일 박춘원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피오나 머레이(Fiona Murray) 리플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 디렉터 및 리플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전북은행-리플 전략적 파트너십

‘리플 페이먼트’ 국내 은행 최초 도입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이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및 크립토 솔루션 기업 리플(Ripple)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차세대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18일 박춘원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피오나 머레이(Fiona Murray) 리플 아시아태평양(APAC) 총괄 디렉터 및 리플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통 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혁신적인 국경 간 결제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분야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은행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리플의 ‘리플 페이먼트(Ripple Payments)’를 국내 은행 최초로 도입한다.

리플 페이먼트는 기존 국제 금융망의 복잡한 중개 과정을 줄이고 빠른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전북은행은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과 IT 스타트업,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투명하며 비용 효율적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베트남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전북중기청, 24-29일 ‘메가어스 엑스포’ 호치민서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유망 벤처 ·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서 대규모 수출 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메가어스 엑스포 2026(Mega-Us Expo 2026)’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북중기청과 호치민시 과학기술부(HCMC DST)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규모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22년 12개 기관과 80개 기업이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29개 기관과 약 15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간 수출 지원 협력체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중기청은 참여 기업들이 현지 바이어 및 투자자와의 매칭을 통해 실

질적인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호치민시 등 현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또 ‘온라인 디렉토리북’을 제작해 참여 기업과 제품에 대한 홍보 · 마케팅을 지원하고, 지역수출컨소시엄 사업과 연계해 행사 이후에도 체계적인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엑스포 본행사는 27일부터 29일까지 호치민시 화이트 팔레스(WHITE PALACE)에서 열린다. 행사장에는 기업 간 거래(B2B)와 소비자 대상(B2C) 전시관이 운영돼 국내 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을 현지에 선보인다.

/오상근 기자

이와 함께 한국과 베트남 대학생들이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겨루는 ‘유니브 스타(Univ.Star)’ 창업경진대회와 투자자 매칭 및 상담을 지원하는 ‘벤처 스타(Venture.Star)’ IR 코칭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특히 28일에는 ‘GBNS(Global Business Networking Session) 2026’이 열려 한국과 베트남 참여기업 및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상만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메가어스 엑스포 2026이 전북 지역의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베트남이라는 거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AI 윤리준수기관 확인마크’ 획득

국민연금공단이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과 윤리적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AI 윤리준수기관 확인마크’를 획득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급하는 ‘AI 윤리준수기관 확인마크’를 지난 10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AI 윤리준수기관 확인마크는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개발 ·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여한다. AI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AI 윤리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인공지능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5대 기본 원칙을 명문화했다. 5대 원칙은 △인간 존엄성 존중 △국민 권리의 보호 △공정성과 공익 증진 △사회적 책임의 실천 △협력적 거버넌스 및 교육 확산 등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성, 책임성 등 핵심 윤리 가치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는 온라인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공직자의 윤리적 소양과 책임감을 높이고 AI 윤리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인식을 강화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북신보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이 청소년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불법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 도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시작한 공익 캠페인이다.

사회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도박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은 참여자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메시지를 전달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오상근 기자

한종관 이사장은 전북에향본부 윤석정 총재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한종관 이사장은 “도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청소년의 미래 신용과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전북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든든한 보호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관 이사장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윤여봉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산업진흥장과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지목하며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되기를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 우수 보리 종자 11개 품종 순차 공급

재배 안정성과 가공 적성이 뛰어난 국산 보리 신품종이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우수 보리 종자 11개 품종을 8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되는 품종은 병해에 강해 재배 안정성이 높고 가공 적성이 뛰어난 겉보리 4품종, 쌀보리 3품종,

맥주보리 4품종이다.

종자 신청은 공급 기관에 따라 나눠 진행된다. 국립식량과학원 공급분은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해누리 · 해맑은 · 백수정찰 · 참하리 · 강맥 등 5개 품종을 신청받는다. 필요한 농업인은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공급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을지연습 돌입

전북농협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을지연습에 돌입했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18일 오전 9시 전시상황조치훈련을 시작으로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에서 전북농협은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농협의 주요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전시 전



환절차를 점검하고, 위기 상황을 가정한 사전 메시지 훈련 등을 진행한다.

또 전시 식량 체험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 · 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 내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공각

내아